

□ 인터뷰 — 윤병희 용인시장을 만나

“대학과 지역은 상호 공생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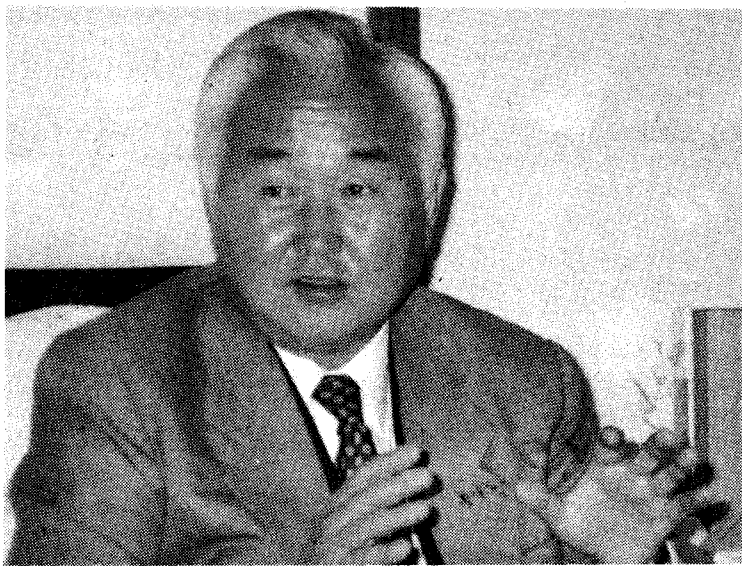
학교주변 전철망사업 순조롭게 진행...경희대, 지역발전의 주체되어야

“대학과 지역의 교류, 대학문화의 정착 등과 관련하여 지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윤병희 용인시장을 만나 보았다.”

“경희대가 용인시 행정구역상에 위치해 있는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주변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기대가 크다. 대학과 주변지역간의 유기적 관계가 요원한 상황에서 성사된 행사이기에 이번 자매결연 행사를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간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을 창출,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고 말하는 윤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학행사 등에 자주 참석하여 대학과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도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문화는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주변지역의 경우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본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윤시장은 87년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국 근무를 시작으로 김포,



▲경전철노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윤병희 용인시장

용인 군수를 지냈으며 현재 용인시 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존 계획으로는 ‘분당-신갈-수원’, ‘분당-신갈-오산’, ‘분당-수지-수원’ 등이 있지만 아직 결

정은 되지 않았다. 수차례의 검증과 현실을 토대로 결정할 중요사항”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 3차에 걸쳐 건의한 ‘서울-분당-경희대-수원역 순환 코스’ 건설 의견에 대해 “교통량이 증가할 경희대 주변의 교통불편을 해

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라며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학의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용인시에 거주하기보다는 서울에서 통학 또는 출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대학주변에 형성되는 문화가 빈약한 상황”이라며 “선결 조건으로 교통체증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한쪽이 떠맡기보다는 양측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어울려 방안을 모색할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회생보다는 양보와 이해가 요구되는 현실속에서 모두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경희대가 보여줄 것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본교 지역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윤택 기자)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록

12월초 확정 예정...기념음악회 개최예정

수원화성과 창경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집행이사회에서 세계문화유산등록이 통과되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하여 작년 6월 등재신청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지 실사를 대비하여 화성영문해자 2종제작, 화성주변정화사업등을 추진하였다.

세계문화유산등록시 수원화성은

사회봉사단 나누리

가정봉사원 모집

교직원 사회봉사단 나누리에서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장애인분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 교육, 말벗, 외출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문의는 나누리(961-0150)나 원광복지관(438-2767)이다.

‘경희대-서천리 자매결연식’ 맺어

국교원, 근린문맹자 위한 초급강좌 개설

수원캠퍼스는 지난 27일 서천마을 주민 3백여명과 ‘경희대-서천리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학교측은 정규교원이 상주하는 보건소를 교내에 설치, 주민들이 수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중앙도서관과 문화,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교육원은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근린문맹자를 위한 한글 및 영어 초급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일번지 주인 허 옥 씨

일번지 주인아저씨

허 옥씨 별세

일번지 주인 허옥(55세)씨가 26일 하오 8시 30분경 경희의료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으로 별세했다.

허씨는 지난 17일 뇌졸중으로 경희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술하에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들들 둔 허옥씨는 83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일번지를 경영해왔다.

한 가족의 행복 지킨 혈전용해술

미국 의학계는 90년대를 ‘Decade of Brain’으로 catch phrase를 내걸고 뇌의 질환 특히 치매나 뇌졸중을 정복하고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43세 남자 환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내원했다. 같은 회사동료가 말하길 야근도중 우측 팔다리가 힘이 없다고 호소하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게되고 우측 마비는 점점 심해졌다고 한다. 진찰해 보니 우측마비의 감각도 마비 상태로 ‘뇌경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인 말이 남편이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명에퇴직 바람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야근이 많아지고 담배양도 늘고 혈압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응급실에서의 CT검사결과 아직 뇌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의 증상은 뇌의 많은 부분의 기능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CT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것은 아직 뇌가 경색(색기)이전에 발견 된 것이다. 이상적인 치료란 비록 뇌혈관이 막혀서 증상은 나타났지만 하더라도 뇌가 경색되기 이전에 막힌 혈관을 풀어(재개통) 경색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혈관을 재개통 시키는 ‘혈전용해술’이란 치료는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워낙 성공률이 낮고 합병증이 많아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제도 새로 개발되고 수술 도구와 기술도 발전되어 ‘혈전용해술’은 아주 성공적이다. 시술을 받으려 혈관 촬영실로 환자가 들어갈 때 가족들의 간절한 얼굴 표정이 우리 의사들에게는 책임감과 투지를 불러일으킨다. 시술을 받기 이전에는 전혀 말도 할 수 없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가 약 40~50분의 짧은(한편으로는 기나긴)시간이 지나자 “선생님 내 팔이 다시 움직여요!”라고 수술대 위에서 말을 하였다.

불과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뇌졸중환자는 죽지 않고 산다면 대부분 환자가 후유 장애를 갖고 남은 여생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는 한 편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증상이 시작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불과 3~4시간. 영영 불구의 몸으로 살 뻔한 40대 초반의 젊은 가장은 짧은시간 기적의 돌 속의 터널을 지나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부인과 말없이 뺨을 쳐다보고 있던 딸의 모습.

침상에 누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던 환자의 한마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의사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갈채였다.

끝으로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발생한 후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가 치료를 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3시간 이내, 늦어도 5시간 이내에 도착해야만 이런 기적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장 대 일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수)

회기동 파출소 진성욱경관

“작은 관심에 커다란 보람을 느껴요”

우리마을 지킴이

경희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개가 우발적이고 가벼운 것이긴 하지만요.”

회기 파출소에서 14개월간 근무한 회기동 지킴이 진성욱(33세)경관의 말이다. 그는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함께 회기동 모든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회기 파출소는 대학가임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치안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휴일은 없다.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계속되는 고된 경찰 업무를 견뎌 내기 위해서 그는 근무 시간 외에도 합기도나 유도 등으로 체력 단련을 한다.

회기 파출소는 강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보다는 학생들 간의 폭



한다. 회기동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지난 경찰의 날이라고 한다. “경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굴과 빵, 우유 등을 사 와서는 감사의 표시라며 전해 주었을 때 ‘정말 이 일도 할 만하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 어디 그런가요.”

“초·중·고등학생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들은 경찰에게 깊은 반감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유로 학생들과 자주 갈등을 겪곤 하지요”라며 씩 웃어넘기는 진경관. 그의 모습에서 민생 치안에 대한 고민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동시에 느껴졌다.

(고세희 기자)

유학·연수

정확한 정보, 친절한 상담, 성실한 수속대행

미국/캐나다/호주/영국/뉴질랜드/일본

- 고졸이상 학력자 2년/4년제 대학입학
- 정규대학 조건부입학 허가서 취득
- 한국학생 적은 학교 안내·추천
- 방학/휴학중 장·단기 어학연수 특별상담
- 전문대졸/4년제 대학생 정규대학 편입학
- 어학연수 무료상담수속(공립학교제외)
- 어학성 진흥 기술사 무료알선
- 전문직 과정(항공·골프·호텔·디자인·미술...)
- 부분수속가능: 입학허가서, 여권, 비자, 번역
- 배대왕 전문가와 언제라도 상담환영
- 日本語 학교, 법무성 유학심사부 출입확인자, 및 학생지도 상담역 8년의 산경험으로 상담
- 日本은 98년 졸업예정자는 98. 1. 13까지 추가 모집

상담부터 귀국까지 모든 서비스 제공

All that for your future!

유학광장

(강남전철역 뉴욕제과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20 경일빌딩 403호

상담전화: 558-3741(대)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와의 만남

알리앙스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98년 1월·2월 학기개강: 1.5(월)

BEF I II, MA I II, NSF I II III, AP, PAN, ECH, ESP I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8 알리앙스프랑세즈시험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급 발급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연수·유학상담 및 수속대행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프랑세즈에서 직접하세요.

'98 봄·여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eoul ☎ 555-1125, 1126(강남)

taegu ☎ (053)255-4630(중구)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çaise

NEW CLASSES!

여행과 비즈니스를 위한

15 SURVIVAL ENGLISH

토익시험 대비

15 TOEIC LISTENING

듣기향상을 위한

15 I GOT IT!

발음교정을 위한

15 SOUNDS FUN!

LTRC is your key to learning English

제157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1998년 1월 5일

반편성: Level Test에 따라

6~13명으로 구성

수강기간: 1월 75분 주 5일수업

강사진: Native Speaker 적강

등록: 1997년 12월 19일부터

Tel: 737-4641(대)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학원

가장 안정된 직업

최강의 교수진

7·9급 공무원

개강: 매월 1일

— 매일 아침 무료특강 07:30~08:30

— 매일 마지막 주 일요일 모의고사 실시

법원·검찰

전문강좌

명강좌

최종 점검반 운영

(60일 완성)

정규 이론반

(순환식)

계속강의

공지사항

· 7·9급 공무원 대상

장학생 선발 시험

12월 14일(일)실시

— 자세한 사항은 학원문의 요망

— GROUP STUDY 모집중

감정평가사(1·2차) 수험생은

누구나 응시가능 (시험 12월 21일)

최강의 단과 교수진

김재정 교수	국 어	이영철 교수	한 국 사
유수연 교수	종합영어	신홍식 교수	수법(문법)
주정환 교수	이카데미 TOEFL	허홍식 교수	회계원리
조병욱 교수	민법총칙	김영현 교수	헌 법
조충환 교수	형 법	조영석 교수	행 정 법
김동현 교수	행 정 화	이양수 교수	형사소송법
장세석 교수	교 정 화	박규열 교수	국 제 법

수험가의 선택주자

남 부 행 정 고 시 학 원

(02)815-7819/7839

진기명 교수팀

감정평가사

1·2차 기본 이론반

개강:매월 1일

· 토지수용법:임형욱 변호사

· 원가회계·국제 경제학 특강

「전국 최대 합격의 신화가 이어집니다」

진기명 교수 **경제학** 개강 12월 1일

법무사반 1월 개강

경찰 간부직 문제 풀이반

남·여 경찰직 시험

각종 시험 준비생 문의 요망

장대학생 수강료 50% 할인